

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 창원영업본부 김백용 상무(왼쪽에서 두번째)와 직원들이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에 동참했다.
2 코로나19 금융지원 상담 이동점포 3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BNK경남은행이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경상남도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파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해의 경우 투입 가능한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과 지역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긴급 금융지원안을 마련해 발 빠르게 지원하고, 금융 앱(App)·이동점포(BNK경남은행 무빙뱅크)·일선 영업점 직원들도 지원의 최전선에 나섰다.

1·2차에 걸쳐 이차보전협약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대리대출, 신보수탁보증대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출 8천7건을 취급해 총 1천863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1만1천807건, 2천90억원을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출과 별도로 추가 지원했다.

올해도 BNK경남은행은 지원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열린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경영방침으로 'BNK경남은행과 함께 고객·지역·직원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의 'with U(위드 유) BNK경남은행, 다시 뛰는 지역경제! 언제나 힘이 되는 지역금융!'을 선포했다.

BNK 경남은행은 이러한 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빠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음식점, 잡화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찾아 쓰는 소비 촉진 운동으로 창원지역 영업본부와 모든 영업점이 동참했다.

또 본점 본부 부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주 1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소상공인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점심을 해결하는 '도시락 DAY'를 하며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에는 창원상공회의소와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NK경남은행은 협력자금으로 예치한 20억원의 2배인 40억원을 대출 재원으로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원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대출한도는 동일인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역에 유익하게 경제를 유쾌하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에 꼭 맞는 유익한 금융,

경제까지 웃게 하는 유쾌한 지역금융으로

다시 가슴 뛰는 일상을 맞이하도록
BNK경남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가장 가까이

BNK 경남은행

